

사설

그래도 희망을 말하자

달포를 끌어온 조계종 사태는 결국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방법으로 매듭지어졌다.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던 정화개혁회의측은 공권력에 의해 '정화'되는 부끄러운 최후를 장식했다. 수십개 종대의 경찰병력이 동원된 '총무원청사 탈환작전'은 목 불인건 바로 그것이었다. 이를 바라보는 불자들은 이제 눈물까지 말라버린 상태였다. 더 이상 종교적 권위나 체면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비관적이라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패배주의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부처님 당시에도 육군비구가 있었고 데바닷다와 같은 사문난적이 있었다. 그래도 불교가 일파도 지지 않은 것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 정법에 대한 신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태를 반드시 풀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절망해서는 안된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정법을 호지하기 위한 불교적 사명의 자각이다.

현 단계에서 불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종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정화개혁회의가 총무원청사를 점거한 이후 종단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에 있었다. 전국 사찰들도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아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절차에 따라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종무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자면 우선 종단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새 총무원장 선출과정에서 어떤 세력들이 절대 공니를 부러지는 안된다. 이번 사태가 총무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촉발된 것이므로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번이야말로 대각성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반

복될 때마다 달랑 사파성명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돌려왔다. 그러나 이렇게 불교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도 '지나간 일이니 잊어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다. 연말까지 전국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새 출발을 다짐하는 특별참회법회라도 가져야 한다. 백번 말로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는 불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지 못한다. 오늘의 종단문제가 종교적 양심의 부재에서 초래된 것이니만큼 과거에 없던 대참회법회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이번 기회에 종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몇차례의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종권중심의 행정개혁이었다. 종정중심제나 총무원장중심제나, 중앙집권적이나 지방분권적이라는 개혁의 핵심대상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종단체제를 '수행과 포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스님이 되고도 수행과 포교 의무를 지지 않으니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는 주지적이지요, 종권이다. 이런 종단구조로는 불교종흥도 백년하청이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언제 또다시 이런 불상사가 생길지 모른다.

땅에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선다'고 했다. 급한 해는 불자들의 모든 기대가 환관싸움으로 송두리째 날아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새로운 희망의 활약을 기대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이번 사태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야 말로 말바닥까지 떨어진 불교가 L자로 가라앉지 않고 다시 V자로 솟아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한 해가 저물어간다. 가는 해와 함께 모든 아픔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정말로 희망만을 말하자.

조계수습 새 집행부 '과제'

공권력 투입이후 조계종 행보

총무원 청사를 반환 받아 종단사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조계종은 어떤 순서로 안정세를 찾아 갈 것인가.

종단 사태 수습은 제29대 총무원장 체제가 떠안아야 할 짐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29일 총무원장 선거를 여법히 치러내는 일이 조계종의 최우선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고산스님과 자선스님의 경합 구도로 형성된 선거는 별

다른 무리없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간 정화회의측에 손을 들었던 일부 교구본사들이 선거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정화회의측은 '정'에서 계속 활동을 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통도사, 은혜사를 비롯한 교구본사들이 정화회의와 계속 행보를 같이 할 경우 이번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징계최소화등 관용적 해결 여론 일부 교구본사 선거참여 여부 '주목'

법상의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새 집행부의 종단화합에 부담은 될 수 있다.

종단의 상징인 정종이 불신임당한 상태에서 총무원측은 신임 정종 추대 문제 역시 새 집행부 구성 이후로 미뤄 놓고 있다. 정화회의측에 가담한 스님들

에 대한 징계문제도 종단 안정화 노선에 중요한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스님은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할 경우 관용과 화합의 기초 속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집행부는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단단히 해야 하는 입문도 지고 있다.

총무원측은 이번사태로 실추된 종단의 위상을 회복시킬 과제도 안고 있다. 이와관련 대규모의 참회대법회가 검토되고 있다. 참회대법회를 통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종단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월하스님이 "정화회의가 이대로 손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화회의는 서울에 사무실을 내고 계속 활동할 방침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이미 돌출된 문제와 정화회의측의 행보를 어떻게 융합시키며 종단을 안정세로 이끌어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nia.com)

동화-선운사 정상화 정화회의측 자진철수

21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를 점수했던 정화개혁회의측 스님들이 23일 오후 4시경 자진 철수함으로써 동화사 점거사태가 해소됐다.

정화회의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동화사를 점수했던 지근스님 등은 주지 성덕스님에게 작인등을 인계하고 동화사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화회의측 스님들이 물러난 것은 정법이 살아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부주지직을 없애는 등의 중무행정 개선, 불법점거사 문책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4교구본사 선운사에도

대우스님이 정화회의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점수를 시도했으나 전 주지방범원이 22일 선운사측이 신청한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라 일단락됐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nia.com)



마음까지 청소 24일 아침일찍 속근한 총무원 직원들이 병과 기와조각이 수북히 쌓인 총무원청사를 청소하고 있다.

구룡사나 조계사 인근 '정화총무원' 설치계획

정화회의측 월탄, 혜충, 성문, 영하스님등은 24일 오전 통도사로 월하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서울의 적합한 장소에 총무원을 설치할 것을 인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월하스님은 24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협의회 소속 중정 1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정협의회는 조계종의 중정교시 불행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임연태 기자

태국불교 지도자들 조계종사태 우려

태국의 불교지도자들은 조계종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불교계의 승왕 사무총장인 프라마하랑차론은 디프레스는 23일 "이번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임연태 기자

가처분 불복 강제집압 초래 공권력투입 배경

'종교문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 오던 경찰이 23일 전격적으로 병력을 투입, 강제집행을 단행한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엄정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풀이된다. 가처분 판결에 대한 집행행위 2차례나 실패한 법원은 18일 경찰병력을 요청했으며 이때만 해도 경찰은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21일 밤 강제집압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의 강제집압은 정화회의측이 자초한 것인 만큼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화회의측이 선운사에 새 주지를 임명하고 동화사를 점수하는 등 지방 사찰 점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약물같았던 조계종사태 43일. 차라리 꿈이길 바랐던 그 현실은 급기야 일간신문 1면과 사회면 머리를 장식하고서 일단락 되었다. 세상을 정화해야할 종교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공권력에 의해 정화개혁측이 총무원 청사에서 물러난 12월 23일, 스님이 웃음을 짓고 북부 자해소동을 벌였다. LP가스에 불을 당기고, 신나를 뒤집어 쓰고... 경찰은 이러한 저항진압에 불พอใจ, 물대포, 고가사다리 등을 동원해야만 했다. 조계사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이제 한국불교 조계종이 세상을 향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참회스러울 뿐이다.

사태의 주역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말과 글로 국민앞에 사과했다. 그러나 불자들이 국민들이 그 사과를 진정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 입으로는 사과를 하면서 사과해야할 일을 멈추지 않았으니... 부처님을 욕되게 하고 성전을 폐허로 만들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불자들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으니 그 값을 무엇으로 어떻게 치러야 할까. 경전에서서는 뉘우침도 좋이라고 했다.

참회는 능히 천도(天道)에 이르게 하며 참회는 능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에 들게 한다. 참회는 능히 삼계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며 보리의 꽃을 피어나게 하며 지혜의 거울을 열어 보배의 장소(열반)에 이르게 한다. <心地觀經>에 있는 말씀이다.

조계종은 참회대법회를 열어 지옥같았던 43일의 악몽을 잊자. 내전 내전 같았던 골 깊은 불신을 참회법회로 일소하자. 그래야만 화합을 이룰 수 있다. 나아가 조계종사태 43일을 일태했던 원인과 업적까지 넘어내자. 무너져 내린 교단의 탑을 다시 쌓아 국민 결의로 다가가기 위해 목숨까지 더 정진하고 더 전법할 것을 다짐하자.

골 기묘한 새 아침의 동이 뜬다.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조계종도 그렇게 새 아침을 맞자.

28명에 구속영장 검찰, 조직폭력배 색출

검찰은 23일 총무원청사에서 연행한 77명의 스님과 신도 가운데 조직폭력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조직폭력배 연관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임연태 기자

현대만평

현대만평



청정도량으로 다시...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4년	■주간 ■야간 ■통신 ■통신	· 고등학교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조계종 승려 ·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채추천자.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중국어과	2년	■주간 ■야간	· 주민등록등본 1통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 반영합판 사진 5매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준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준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준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불교계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예정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22명취득 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9년 1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첨 소인 유요)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 ~ 8 FAX. 511-108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511-2026-8)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uddhan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중 · 고 통신과정	3년	야간 및 통신 강의 병행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졸업 후 중앙승가대학 입학 가능
- 특전 : 성적에 따라 단기간에 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1월 부터 수시 모집
-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8, FAX : 02)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삼화불교대학 부설 ◆

영어 · 일어

- 개강일 : 1999년 1월 4일(월) -

부처님의 큰 뜻을 온 세계에 전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공부에 뜻이 있는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영어 · 일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강사진의 "1대 1 강의"로 꼭 뜻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강좌 안내

영어

- Step 1 기초반 : ABC 처음부터
- Step 2 초급반 : 문법과 초급회화
- Step 3 중급반 : 중급회화와 문법
- Step 4 고급반 : 주제별 Free Talking

일어

- 기초 : 히라가나부터, 기초문법
- 초급 : 기초회화
- 중급 : 실용회화
- 고급 : 다양한 회화표현

- 대학원 준비반
- 각 과정 3개월
* 월 · 수반, 화 · 목반, 주말반(각 120분 수업)
- 시 간 : 오전 10:00 ~ 19:00
- 문의처 : Tel. 02)511-2026-8

★ 사찰별 그룹지도 가능 ★